

119구급대원의 보람



이 국 협
<중부소방서 소방사>

'85년은 유난히도 힘든 시
간의 연속이었다. 출동
을 해서 환자를 처음 바라볼 때
그들에겐 목놓아 울지못할 눈물
을 가슴속 깊이 혼자 삼켜야 했다.
멍한 가슴속으로 끝내 운명임을
부정하기엔 이미 너무나 연약해
버린 그들, 애절한 눈으로 우리
의 손목을 부여잡는 간절한 구원
의 눈빛을 감당하기 어려워 차라
리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솔직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찌서 인간에
게 이토록 괴로운 장면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송하는 것도 모르고
혼수상태에 든 모습을 보며 내자
신이 웬지 커다란 죄인인듯 숙연
해 질 때도 있었다. 해가 거듭될
수록 증가되는 출동건수, 우리 중
부소방서에서만만도 작년과 비교할
때 40%가 증가, 1천 4백건 출동
에 1천 60명을 이송했다. 응급실
안의 엇갈린 표정들속에 거대한
질서를 무참히도 깨뜨리는 유와
무의 순간적인 교차. 다시는 이런
긴박한 순간이 우리에게겐 없어야
겠다는 마음 뿐 진정으로 그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85년초 꽤나
추웠던 날, 연시의 들뜬 찌꺼기
를 구급차 안에 잔뜩 토해낸 너
석, 짝사랑하는 애인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시퍼렇게 날이 번뜩이
는 생선회 칼로 온몸을 자해하던,
눈자위가 유난히도 허연 곱슬머
리 그 너석을 살살 달래어 이송
시킬 땐 오싹 소름이 돋기고 했고,
시험을 앞두고 밀폐된 골방에서
석유 난로를 피우며 공부하다가
질식한 학생, 중구 황학동 이파트
의 외알 전구 빛 아래서 방안 가
득히 하혈로 물들이며 난산하던
산모. 옆에선 "젊은 것들이 뭘 아
느냐"고 소리치던 노할머니. 다음
날 모든 일이 잘 처리된 후 미역
한다발을 들고 찾아간 우리들에게
"손주 너석이 너무 예쁘다."고 자
랑하던 모습-. 85년도의 갖가지
상념이 떠오른다.

요즘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 까닭을 모르
겠다. 너무 안이한 생활 태도이
어서 일까?

특히 기압이 낮아 날씨가 흐리
거나 눈, 비가 오는 아침이면 영
락없이 연탄가스 환자 때문에 출
동하는데 약 10% 정도는 생명을
건질 수 없는 치명적인 지경에 이
른 경우였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
르겠지만 1년동안 우리 관할구역
(중부소방서)에서 2백명이 넘게
이송됐다. 서울전체, 우리나라 전
체를 따져보면 실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환
자가 7시이전에 발견되면 거의 다
소생 가능한 경우지만 그 이후
발견시에는 경우에 따라 예측할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된다. 특히
일요일, 공휴일 아침에는 직장이
나 학교도 안가니까 그만 늦잠을

자려니 하는 생각에 인기척이 없더라도 별 관심이 없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을 며칠 안남기고 약혼녀의 연탄가스 중독 사고에 넋을 잃고 멍하니 응급실앞에 섰던 약혼자의 모습.

신문기자 시험에 합격, 연수교육도 끝내고 대망의 첫 출근날 아침 연탄가스에 중독된 외아들을 놓고 목놓아 울던 노모의 울부짖음. 2대독자의 연탄가스 중독사고에 어쩔줄 몰라하던 홀어머니의 당황한 표정.

85년 3월초 중구 신당5동. 07시 30분 출동. 꼬불꼬불한 골목 끝집 아가씨들 둘이 가스에 중독. 잠옷 바람에 마당에서 뒹굴고 있었다. 입가에는 김치국물이 묻어 있고 식초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신도 없는 그들에게는 김치국물 또는 식초가 오히려 기도를 막아 질식케하거나 폐속으로 들어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를 만들 수도 있으니 냄새로 자극을 주기 위해 코 밑에 들이대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가스환자 발생시는 빨리 환기를 시키고 병원이나 119 구급대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들을 응급처치한 후 구급차 안에 옮겨주고 무전 연락하여 산소탱크가 남아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야 했다. 장착된 1개의 인공소생기를 착용시킬 차례인데 과연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확신했다. 이 인공소생기를 착용시킨 자는 살아난다고. 똑같은 상황에 환자는 둘, 어찌나! 누군가에게 기도를 드렸다. “올바른 판단, 행동을 할 용기를 주옵소서!” 감히 세가 선택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다급하게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하나는 침대에, 하나는 차량바닥에 누워진 아가씨들. 흔들거리

는 진통속에서 바다에 누인 채로 신음하는 아가씨가 너무 인스러웠다. 응급실 의료팀들의 서두름에도 끝내는 커튼으로 환자를 가리우며 고무장갑을 벗어든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분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그에게 소생기를 착용시켰더라면….

며칠동안 원망스레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뜯눈으로 밤을 세웠다. 다행히 며칠 후 “우리 아이를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부모의 전화에 그래도 그 와중에 1명은 구해냈다는 생각으로 자위할 수 있었다. 둘은 각기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상경. 봉제회사에 다니며 자취를 했는데 그날 따라 야간작업을 끝내고 밥을 지어 먹고서는 연탄을 늦게 갈았다가 그런 변을 당한 그들의 무지가 가여웠다.

우습던 일, 보람있던 일도 많았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후 아파트 부인들끼리 심심풀이(?) 짜장면내기 고스톱을 하고 있었다. 그중에 만삭의 부인도 있었는데 계속 잃기만 하다가 그간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 만삭의 부인이 환희의 순간,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출산을 해버린 것이다. 그러자 이미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부인들 마저 같은 여자로서 서로 돕고 원만하게 처리하기는 커녕 무슨 큰일이라도 난듯 모두 도망가고 말았다. 그중 한 사람이 119구급대로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니 아기와 태가 화투장에 엉겨 있었고 산모도 정신을 잃었는지 그대로 누워 있기만 했다. 처리를 다 해주고 귀서도중 동료와 한바탕 웃었다. “고

스톱을 하다 낳았으니 이름을 「고돌」이라 지어야 한다”고.

봄에 왕십리에 연탄가스 환자가 발생. 출동을 했는데 그때가 05:30분쯤이었다. 환자보다 그들 부모들이 몰려와 야단을 떨면서 하소연을 했다. “오늘 12:30분에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인데 큰일났다”는 것이다. 가까운 산소탱크가 있는 병원에 이송후 당직의사에게 사정을 말했다. “염려말게” 노안의 웃음. 그날 피곤해서 숙직실에서 늦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다.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신혼여행을 가는 중인데 머리는 아직도 맑지 못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꼭 찾아 뵙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신혼여행 중인지 만나보지는 못했다.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오후 2시쯤 종로5가 백제약국앞 도로변으로 출동을 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환자를 실바닥에 누워왔는데 노랑머리 정바지차림의 외국인이었다. 행인들이 119로 신고를 해준 모양이었다. 구급차 안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화여대부속병원으로 이송하며 그 또래의 동행인인 턴복숭이에게 짧은 영어로 물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갑자기 기절하여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

“어디 머물고 있는가?”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휴가중이다.”

병원 이송후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귀서를 서두르는데 “경찰관이냐” “아니다. 119소방서 구급대원이다.”라고 답하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Oh! Emergency man, Number one!”이라며 활짝 웃었다. ▣